

경기일보

2017년 04월 14일 (금)
11면 지역

힘찬 평화의 페달... DMZ 봄 '만끽'

내달 27일 연천·철원 일원서 'Tour de DMZ' 자전거 퍼레이드

‘굿모닝 경기도’와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와 경기일보가 주관하는 ‘2017 Tour de DMZ(뚜르 드 디엠지) 자전거 퍼레이드’가 다음 달 27일 연천과 강원도 철원 DMZ 일대에서 펼쳐진다. 뚜르 드 디엠지는 지난 2013년 정전 60주년을 기념하고자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한 행사로, 올해로 5회째로

지난 2015년부터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DMZ의 생태 및 관광자원을 활용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열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매년 출발점을 순환 개최하기로 협의, 지난해는 강원도 철원에서 출발해 연천을 돌아오는 코스로 전국 각지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해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다음 달 27일 오전

9시 30분 연천 공설운동장에서 출발, 대광리역과 백마고지역을 지나 철원 DMZ 평화문화광장을 돌아 다시 연천 공설운동장으로 돌아오는 62km 코스를 달린다. 주행코스에는 민통선 구간 15.6km가 포함돼 평소 볼 수 없는 민통선 내 아름다운 경치와 풍광 등을 만끽할 수 있다.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DMZ 일대를 자전거로 달리며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중요성도 되새겨볼 수 있다.

남경필 지사는 “계층과 세대, 이념의

장벽을 넘어 소통과 화합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www.tourde-dmz.c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일반은 1만5천 원, 수송열차와 셔틀버스를 이용할 때는 3만 원 등이다. 사전 신청하면 현장에서 자전거 대여도 가능하다(대여료 별도).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관광공사(031-956-8307)로 문의하면 된다.

정일형기자

22.7 X 8.2 cm

충부일보

2017년 04월 14일 (금)
20면 지역

평화누리길 '9km 꽃길'로 봄소풍 갈까요

울곡습지공원·임진강탐방로 등 반구정길서 내달 20일 걷기행사 참가 희망자 1천200명 모집

경기도와 파주시가 오는 5월 20일 파주 평화누리길 8코스 '반구정길'에서 열리는 '2017년도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의 참가자를 13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생태탐방로로 떠나는 봄 마중’을 주제로 열릴 이번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울곡습지공원을 출발해 생태탐방로를 지나 장산전망대와 화석정을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9km의 순환형 코스

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울곡습지공원에 가득 핀 유채꽃은 물론, 지난해 45년 만에 민간에 다시 개방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걸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이곳 생태탐방로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나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 지난해 1월 개방 이후 1년 만에 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완연한 봄을 느끼며 남녀노소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코스 중간 중간 미니게임이 배치되며 참가자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통해 카드를 수집하는 ‘모두 찾아라! 평화누리길

카드게임’과 ‘평화누리길 페이스페인팅’, ‘평화누리길 포토카드’ 등이 진행된다.

또, ‘평화누리길 종주투어’ 홍보대사인 배우 박철민 씨가 동행해 출발지 포토월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박철민과의 포토타임!’도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참가자들에게는 완보증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며, 사전신청자에 한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면 자원봉사활동 3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참가신청은 선착순으로 공식 홈페이지(www.walkyourdmz.com)에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1천200명이며 참가비는 1만 원이다. 조윤성기자·편집·심미정기자

17.2 X 10.0 cm

평화누리길 걷기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파주시는 내달 20일 파주 평화누리길 8코스 반구정길에서 열리는 '2017년도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참가자를 13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생태 탐방로로 떠나는 봄 마중'을 주제로 유채꽃이 만발한 울곡습지공원을 출발해 생태탐방로를 지나 장산전망대와 화석정을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9km의 순환형 코스로 진행된다.

이곳 생태탐방로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나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 지난해 1월 45년 만에 민간에 다시 개방된 이후 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기도 했다.

행사에서는 코스 중간 중간 미니게임이 배치되며 참가자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통해 카드를 수집하는 '모두 찾아라! 평화누리길 카드게임'과 '평화누리길 페이스페인팅', '평화누리길 포토카드' 등이 이벤트로 진행된다.

또 평화누리길 종주투어 홍보대사

인 배우 박철민 씨가 동행해 포토타임을 갖고 참가자들에게는 완보증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사전신청자에 한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면 자원봉사활동 3시간도 인정받는다.

참가신청은 13일 오전 10시부터 공식홈페이지(www.walkyourdmz.com)에서 진행되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1200명으로 참가비는 1만원이다.

031-956-8310(경기관광공사).

/의정부=강상준 기자 sikang15@incheonilbo.com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

13일부터 참가자 모집

9km 코스 내달 20일 개최

경기도와 파주시는 다음달 20일 파주 평화누리길 8코스 '반구정길'에서 열리는 '2017년도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의 참가자를 13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생태탐방로로 떠나는 봄 마중'을 주제로 열릴 이번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울곡습지공원을 출발해 생태탐방로를 지나 장산전망대와 화석정을 거쳐 돌아오는 9km의 순환형 코스다.

울곡습지공원에 가득 핀 유채꽃은 물론 지난해 45년 만에 민간에 다시 개방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걸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나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 개방 이후 1년 만에 1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번 행사는 완연한 봄을 느끼며 남녀노소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코스 중간 중간 미니게임이 배치되며 참가자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통해 카드를 수집하는 '모두 찾아라! 평화누리길 카드게임'과 '평화누리길 페이스페인팅', '평화누리길 포토카드' 등이 진행된다.

또한 '평화누리길 종주투어' 홍보대사인 배우 박철민 씨가 동행해 출발지 포토월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박철민과의 포토타임!'도 준비된다.

참가자들에게는 완보증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며 사전신청자에 한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면 자원봉사활동 3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참가신청은 13일부터 공식 홈페이지(www.walkyourdmz.com)에서 진행된다. 모집방법은 선착순 1200명이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